

일반대학원 교육학과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P 대학교 교육학과 대학원 수업 사례를 중심으로

김미호* · 기희경 · 지미영 · 김현지**

[요약]

본 연구는 P 대학교의 일반대학원 교육학과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일반대학원으로서의 교육학과의 발전방안을 탐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P 대학의 일반대학원 교육학과 수업에서 석박사 재학생들의 토의토론을 중심으로 일반대학원 교육학과의 발전 방향에 대한 선행연구와 P 대학의 일반대학원 교육학과의 운영 현황과 특이점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해당 대학 교육학과의 발전방안을 모색하였다. 연구 결과는 첫째, 구성원들의 비전 공유를 위해 일반대학원으로서의 교육학과의 목표와 정체성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둘째, 융·복합적 교육 문제해결에 적합하도록 학사 구조와 석·박사과정의 운영 체제의 변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실제적 연구와 실천을 위하여 공동 연구와 공동 지도 및 프로젝트 내실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넷째, 구성원 간 개방적 네트워크와 국제화 및 실효성 높은 교육을 위한 대학원의 인적 및 물적 환경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도출한 발전방안들은 개별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교육학과의 체제 및 지원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소들 유기적인 관계를 고려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일반대학원으로서의 교육학과의 발전을 위해서는 개별 구성원 또는 공동체적 차원에서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가야 할 것이다.

주제어: 일반대학원, 교육학과, 발전방안, 학과 정체성, 대학원생

* 부산대학교 강사, 제1저자

** 동명대학교 초빙교수, 교신저자, hjgim@tu.ac.kr

논문접수 : 2023년 11월 27일, 논문심사 : 2023년 12월 18일, 게재승인 : 2023년 12월 22일



I. 서론

대학원 박사학위 졸업자는 지난해 1만6천139명으로, 2000년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연합뉴스, 2021.06.21.). 2020년 말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학원생은 석·박 합해서 약 32만 명으로 2000년 약 23만 명에서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국가교육통계센터, 2020a). 절대 학령인구의 감소로 대학생이 2000년 약 313만 명에서 2020년 약 295만 명으로 감소하고 있는 경향에 비해 인구증감률까지 생각하면 상당히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고령화 사회와 더불어 평생학습 사회로 진입함으로써 앞으로도 대학원 교육의 상대적 비중은 늘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신현석, 2011).

대학원 교육 증가 배경에는 20세기 후반 이후 지식사회로의 변화에 따른 고등지식과 고급인력에 대한 사회적 요구, 대학교육의 보편화로 고등교육의 역할이 대학원으로 이동, 청년 취업 불안에 따른 학력 인플레이션, 대학의 수익 창출 욕구에 따른 공급 증가 등 여러 요인이 거론되고 있다(강인수, 2002; 김원찬, 2004; 이수정, 김승정, 2020; 최인희, 2020). 특히, 석사 재학생이 2011년 기점으로 점락하고 있는데 비해, 박사 재학생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보면(국가교육통계센터, 2020b), 취업 유예로 인한 대학원 진학이라는 일시적 요인보다는 고등교육에 대한 보다 근본적 수요 요인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대학원은 학사 이상의 전문 인력인 석사나 박사를 배출하기 위한 독립적 교육기관으로(고등교육법 제29조, 30조), 우리나라에서는 1946년에 서울대학교에서 최초로 설립되었다(반상진, 신현석, 이석열 외, 2004). 1995년 5·31 교육개혁 방안 발표로 우리나라 대학원 체제 전반에 걸친 개혁이 본격화되고, 대학원 설립기준의 완화로 비약적인 양적 팽창을 가져왔다(신현석, 안선희, 엄준용, 2013; 이수정, 김승정, 2020; 한국교육개발원, 2018). 하지만 이에 비해 질적 성장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강인수, 2002). 연구 수준의 미흡, 대학원 교육에 대한 고유한 이념과 위상 미확립, 대학원 유형별 특성과 기능의 미분화와 미확립, 대학원 인가 남발과 운영 부실, 낮은 사회적 기여도, 교수 편의적인 교육과정 운영 등 고질적인 문제가 상존하고 있다(강인수, 2002; 김원찬, 2004; 이수정, 김승정, 2020). 또한 학제 상 최상위에 위치하는 교육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국가 수준의 대학원 종합발전계획도 없이 학부 중심의 고등교육 발전계획에서 부분적으로 언급될 뿐이며(신현석, 2011), 1999년부터 대학원 육성 정책으로 BK21(Brain Korea 21) 사업을 통한 학문 후속세대 육성 및 대학원 연구력 향상을 위한 지원을 하고 있지만, 상기한 여러 문제에 대한 근본적 대응이 되지 못하고 있다(신현석, 2011; 이수정, 김승정, 2020).

우리 대학원의 이러한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하기 위한 2000년 이후의 연구를 살펴보면 이념, 역량, 현황 및 과제에 대한 거시적 연구(강인수, 2002; 김원찬, 2004; 신현석, 2011; 최윤미 외, 2010)와 교육과정과 수업 등 지원전략(김혜진 외, 2012; 신희권, 2010), 대학원생의 학습경험과 만족도 및 진학요인(박민정, 2007; 방현희, 이미정, 2015; 신현석 외, 2008; 이영민, 임정연, 2011; 임희진 외, 2016; 최인희, 2020)에 대한 미시적 연구 등 지속적으로 시행되어 왔다. 이러한 대학원 일반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은 원론적인 차원에서 보편적인 문제와 과제를 제시해줌으로써 전체 대학원 정책을 마련하는데 유의미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전문적인 고등학문의 특성상 실질적인 대학원 교육의 양질화를 위해서는 각 전공 분야별로 대학원 교육의 이념과 목표, 학사 및 교육 운영 방안 등에 대한 개별적·심층적 연구가 이루어지고, 전공 내부 구성원들의 논의와 합의가 확대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P 대학의 일반대학원 교육학과에 재학 중인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교육학과 대학원의 발전방안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 한다.

일반대학원 교육학과는 교원 배출과 교사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특수대학원인 교육대학원과 달리 교육학 분야의 학문 후속세대 양성을 위한 기관으로 ‘교육학 이론과 고도의 학술연구 역량 신장을 통해 교육학 교수역량과 학문연구 역량을 지닌 교육학자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신현석 외, 2013). 선행연구에 따르면 일반대학원 교육학과만의 특수한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거의 모든 대학에서 교육학 석·박사과정을 운영함으로써 석박사가 과도하게 배출됨에도 불구하고 대학과 교육 연구기관의 외국 박사 선호현상으로 인하여 국내 대학원 박사학위자의 진로가 불투명한 고충을 겪고 있다. 대부분 대학에서 유사하여 대학원 교육학과 교육과정과 학사관리가 특성화가 되고 있지 않으며, 전통적인 교육학 영역과 학교 교사 교육학에 머물러 사회변화 및 교육 수요자의 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전공 및 교과과정 개편에 소극적이다. 한편, 교육학 교육은 교수 자신이 교수-학습의 권위자라는 암묵적인 가정 하에 가르치는 방식의 절대적 권위가 타 학문 분야보다 더 맹신 되는 경향이 있어 교수-학습 혁신을 위한 노력이 오히려 미흡한 결과를 낳기도 한다. 또한 타 학과에 비해 전일제 학생보다는 교사 등 재직자와 고령자 수의 증가로 야간수업 및 형식적 수업이 이뤄짐으로써, 고도의 학술연구와 교육학자 양성이란 일반대학원 교육학과의 교육목표 실현이 위협받고 학문 후속세대 연구역량 개발에 어려움이 있다(문지윤, 2019; 신현석 외, 2013).

최근 지식사회 및 평생교육 사회로의 전환 필요성이 역설되고 있는 사회 흐름 속에서 일반대학원 교육학과 역시 석·박사 입학생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12년 이후부터는 일반대학원 교육학과 박사과정 입학생이 석사과정 입학생보다 많아지고 있다(국가교육통계센터, 2020c). 이와 더불어 국가 차원의 대학원 지원 사업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선행연구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일반대학원 교육학과의 목표 및 운영에 관한 다각적 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실제 P 대학교 일반대학원 교육학과 수업에서 석박사 재학생들이 논의한 것을 중심으로 연구자들의 전공 학과인 일반대학원 교육학과의 학습 및 연구 현실에 대해 분석하고 향후 해당 학과 대학원의 발전방안을 탐색하고자 한다. 기존 일반대학원 교육학과의 발전방안을 탐색한 선행연구들이 기성 교육학자나 교수자 관점에서 제도적·양적으로 접근하거나(신현석 외, 2013; 장유나 외, 2020), 대학원생들의 개별적 경험과 의견에 근거한(문지윤, 2019; 신현석 외, 2013; 이수정, 김승정, 2020; 장유나 외, 2020) 것이라면, 본 연구는 토의형 프로젝트 대학원 수업에서 석박사 재학생들이 함께 집단적 논의를 통해 문제점과 발전방안을 제시한 것을 바탕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의 차이가 있다. 미래 교육학자이자 대학원 교육수요자인 석·박 과정생의 수학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대학원 교육학과의 발전방안을 제시하려고 한 점에서 미래지향적인 대학원 혁신 방향과 교육학 발전에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일반대학원 교육학과 발전 방안에 대한 선행연구

우리나라에서 대학원은 대부분 학부 대학에 속해 있으나 간혹 대학원만을 둔 대학원 대학의 형태로도 존재하며 학사 이상의 전문인력인 석사나 박사를 배출하기 위한 독립적 교육기관이다(고등교육법 제29조, 30조). 고등교육법 제29조 2항에 따르면 대학원은 그 주된 교육목적에 따라 학문의 기초이론과 고도의 학술연구를 주된 교육목적으로 하는 일반대학원, 전문 직업 분야의 인력양성에 필요한 실천적 이론의 적용과 연구개발을 주된 교육목적으로 하는 전문대학원, 직업인 또는 일반 성인을 위한 계속교육을 주된 교육목적으로 하는 특수대학원으로 구분된다(고등교육법 제29조).

특정 전문 직업인을 위한 전문대학원과 특수대학원과 달리 일반대학원은 주된 교육목적이 학문의 기초이론과 고도의 학술연구로써 지식 창출이라는 대학 고유의 학문적 본령을 추구하는 고등교육 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일반대학원은 ‘학문’과 ‘연구’를 중시하여 학문 후속세대를 양성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따라서 박사과정을 제한적으로 운영하는 전문대학원과 석사과정만 있는 특수대학원과 달리 일반대학원은 박사과정까지 이어진다. 그리고 실무 위주의 내용보다는 해당 학문 분야의 학술이론과 연구방법

론을 주 교육 내용으로 다루며 연구논문을 작성하고 발표하는 활동까지 포함된다(신현석, 안선희, 엄준용, 2013; 김세련, 최고은, 박인우, 2020).

따라서 일반대학원 교육학과는 교원 배출과 교사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특수대학원인 교육대학원과 달리 교육학 분야의 학문 후속세대 양성을 위한 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일반대학원 교육학과는 ‘교육학 이론과 고도의 학술연구 역량 신장을 통해 교육학 교수역량과 학문연구 역량을 지닌 교육학자를 양성하는’ 기관으로(신현석 외, 2013), 2020년 현재 일반대학원 교육학과는 67개이다(장유나 외, 2020).

일반대학원 교육학과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 연구로는 신현석 등(2013), 장유나 등(2020), 이수정과 김승정(2020), 문지윤(2019) 등의 연구가 있다. 먼저, 신현석 등(2013)은 대학정보 공시제에 탑재된 자료와 각종 교육통계자료, 일부 대학원의 홈페이지 분석을 통해 일반대학원 교육학과의 현황과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개선 과제를 제시한 바 있다. 먼저 현황은, 투입 측면에서는 교육목표와 전공 구성, 석·박사 재학생 수,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가 개선되었고, 과정 측면에서 전공 구성, 교과목, 학사관리,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 교수 1인당 연구실적 등이 개선되었고, 산출 측면에서는 석·박사 학위취득자 수, 교수 연구실적이 증가하였지만, 학생 취업률은 하락하였고, 중도 탈락률도 일반대학원 전체와 비슷한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다음으로 문제점은, 첫째, 투입 측면에서는 충원의 어려움, 대학원 독자 운영 체제 미흡, 해외대학원 진학 경향, 교육학 교육에 대한 요구와 만족도 조사 미흡 등이, 둘째, 과정 측면에서는 교육과정의 동형화, 질 관리 미흡 등이, 셋째, 산출 측면에서는 인력수급 불일치, 진로 불확실, 성과조사 시스템 미비 등이 분석되었다. 이러한 문제 진단에 근거하여 발전과제로 우수 학생 모집을 위한 체계적 진로 교육 및 홍보, 사회 및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한 교육프로그램의 방향 정립, 효과적 교수-학습 방법 연구 및 실천, 자 체적인 질 관리 체제 구축, 협력적 학습공동체 구축 등을 제안하였다(신현석 외, 2008).

또, 장유나 등(2020)은 4차 산업혁명과 평생교육 시대에 즈음하여 기존의 교원 양성을 위한 좁은 역할의 교육학에서 벗어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여 보다 넓은 의미의 교육학으로 나아가기 위한 기초적 연구의 차원에서, 국내 일반대학원 교육학과의 전공 개설 현황을 네트워크 분석을 통하여 대학별 개설 세부 전공과 그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국내 교육학 학문의 거시적 현황과 흐름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한편, 이수정과 김승정(2020)은 일반대학원의 교육학과 석사과정 학생들과 교수들이 인지하는 대학원 석사과정의 목적과 기대, 대학원 학습경험과 진로 탐색 과정을 면담을 활용하여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운영에 있어 대학 특성과 학생 요구를 반영한 구체적인 교육과정 및 학사관리 방안, 그리고 진로 준비와 진로에 대한 수

퍼비전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또한 문지윤(2019)은 연구자 자신의 경험에 대한 자문화 기술지 방법으로 교육학 전공 대학원생의 교육 경험과 그들의 삶을 통해 어떻게 연구자가 되는지를 살펴보고, 그 속에서 드러나는 문제점이나 개선점들을 발견하여, 이를 개선하고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상과 같은 선행연구들이 기성 교육학자나 교수자 관점에서 혹은 대학원생들의 개별적 경험과 의견에 근거하였다면, 본 연구는 토의형 프로젝트 대학원 수업에서 석박사 재학생들이 함께 집단적 논의를 통해 문제점과 발전방안을 제시한 것을 바탕으로 하였다는 점이 차별화된다. 대학원의 양·질적 성장을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대학원 생활을 경험하는 학습자들의 학습경험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Bird, 2017; Jancey & Burns, 2013). 이수정과 김승정(2020)과 문지윤(2019)의 연구에서 대학원생 학습자 관점의 탐색이 이뤄진 바 있으나, 일반대학원의 경우 박사과정에 대한 비중이 높은 데도, 석사생에 한정되거나 수업과 진로 등 논의 영역이 다소 협소한 측면이 있다. 또한, 점점 높아지고 있는 유학생 비율을 고려하면 논의에 참여하는 연구참여자에 석사, 박사 과정생뿐만 아니라 유학생의 의견도 중요할 것으로 사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대학원 교육학과에 재학 중인 국내 및 유학생, 석사과정 및 다양한 세부 전공 박사과정 재학생 등 학과의 다양한 학습자가 함께 논의에 참여하는 의의가 있다.

2. P 대학교 일반대학원 교육학과의 운영 현황

1953년 8월 17일에 설립된 연구중심의 대학원이 있는 P 대학교 일반대학원 교육학과는 연구중심 대학으로서 독창적인 연구 능력을 갖춘 교육학자와 전문적 지식과 지도 능력을 겸비한 교육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을 교육목적으로 학문적 연구 탐구 기능을 주로 담당한다. 이는 교육목표를 살펴보면 더 뚜렷이 나타난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교육 현상과 본질에 대한 이해 능력을 기른다. ② 교육학의 학문적 성격과 성과에 대한 이해 능력을 기른다. ③ 교육 현장에 대한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④ 교육학자 또는 교육전문가에게 필요한 품성과 지도 능력을 기른다. 이러한 교육목표는 다른 대학원에 비해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는 특성이 있다고 파악할 수 있다.

교육학과 대학원 전공 구성은 대체로 전통적인 교육학의 영역 구분이 유지하되 교수들 전공에 따라 구성된다(신현석, 안성희, 엄준용, 2013). P 대학교 일반대학원 교육학과 교육과정은 석사과정은 교육학과 하나로 편성되어 있지만, 대체로 지도교수별 세부 연구 분야로 나누어지며, 박사과정은 4개의 전공, 즉, 교육사 및 교육철학 전공, 교육과정 및 교육방법 전공, 교육심리 및 상담심리 전공, 교육행정·교육사회·평생교육 전공으로

나누어져 있다. 이러한 교육과정을 이끌어가기 위한 교원은 교수 13명, 부교수 1명, 조교수 1명 등 총 7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부산대학교 2020 통계 연보). P 대학교 일반대학원 교육학과의 학위과정은 박사과정 2년, 석사과정 2년으로 수업 형태는 주간으로 편성이 되어 있으며, 석사와 박사가 함께 수업을 듣도록 편성되어 있다.

2020년 정보를 기준으로 P 대학교 일반대학원 교육학과의 재학생은 석사 77명, 박사 72명으로 총 149명이다(대학원 통계, 2020.08). 신현석, 안성희, 엄준용(2013)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석사과정이 박사과정보다 많은 타과에 비해, 일반대학원 교육학과 석·박사의 비율은 서로 비슷한데, P 대학교 일반대학원 교육학과도 이런 공통된 특징을 보인다. 올해 2021년에는 박사과정 28명, 석사과정 42명(전국대학원, 2021 기준)이 입학하였다. 취업률은 현재 신현석 외(2013)과 같은 85.7%(대학알리미, 2021)이며, 졸업 이후 대학교수 및 교육연구전문가, HRD 전문가, 평생교육사, 교육공무원 및 교육행정전문가, 상담전문가로 진출하고 있다(P 대학원 통계, 2020).

교수 신문(2014)에서 박사과정 재학생 중 직장을 병행하는 비율이 절반을 넘는 것으로 밝힌 바 있는데, 서울권은 학업에 전념하는 경우는 75%이지만 지방은 직장병행 비율이 56.3%이다. 특히 교육학과는 교육직을 겸하는 사례가 많은 편인데, 본 연구 대상기관인 P 대학교 일반대학원 교육학과 또한 전일제와 파트타임제가 공존하고 있으며, 파트타임은 교사, 대학 직원, 교육서비스업 등 다양한 재직자로 구성되어 있다. 그뿐만 아니라 특수대학원 출신 비율도 높고 평균 연령도 35세 이상 40대 초반의 비율이 높아 학문 후속세대 양성에 대한 고민이 있을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그리고 학령인구 부족으로 유학생이 증가하고 있는 점도 다양한 문제점과 개선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재직자, 유학생, 석박사과정 등 다양한 수업구성원으로 인한 학업 성취의 차이, 소통과 협업 필요성 등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또한 P 대학교 일반대학원 교육학과는 2006년 4월에 BK21 2단계 사업 선정을 기점으로, 3단계에 이어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까지 16년째 참여하고 있으며, 4단계에서는 “사회적 책임 교육”을 표방, 교육 비전으로 사회적 책임에 기반을 둔 교육을 통해 미래사회 혁신을 선도하는 연구와 실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을 목표로 『교육의 사회적 책임 교육연구단(이하 ‘교육연구단’이라 한다)』이 설립되어 연구중심대학으로서의 역할에 매진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환경은 해당 교의 석박사 재학생들이 학문과 연구중심이라는 일반대학원 교육학과 본연의 역할과 발전방안에 대해 더욱 적극적으로 관심을 두게 만드는 요소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P 대학 교육학과는 다양한 구성원과 상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대학원 교육학과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시사점을 제공해줄 것으로 판단된다.

Ⅲ. 연구 방법

1. 수업 내용 및 진행 과정

본 연구 사례가 논의된 수업은 2020년 2학기에 P 대학교 일반대학원 교육학과에서 개설된 “고등교육기관의 사회적 책무성”이다. 수업목표는 ‘고등교육의 목적, 교육과정, 사회적 책임에 대한 쟁점을 파악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러한 수업목표를 가지고 독서 토론식 수업으로 책 3권, 즉 Brighouse와 McPherson(2015)의 고등교육의 목적, 미호와 히로이치(2018)의 대학의 위기, Carey(2016)의 The end of college를 9주간 읽고 각자 개인적 소감문을 과제로 제출 후 개인별로 책을 읽으면서 들었던 생각과 소감, 발제한 내용을 공유하고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쟁점을 논하였다. 이러한 사전 독서 세미나는 고등교육 혁신을 위한 실천적 프로젝트 수행에 동기부여로 작용하여, 수강생의 자발적 제안으로 ‘P 대학교 일반대학원 교육학과의 발전 방향 탐색’과 ‘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측정 도구 개발’ 두 주제로 나누어 팀 프로젝트 수업으로 운영되었다(〈표 1〉). 수업이 종료된 후 논의된 의견을 연구자 1인이 참여자 전원과 공유하는 발표가 있었으며, 이후 연구의 진행과 수업에서 도출된 내용을 바탕으로 본 연구의 방향과 목적에 대한 설명을 진행하였다. 이후 수행 과제의 결과를 토대로 사후 연구 진행 계획과 이에 필요한 동의를 취득한 후 연구를 진행하였다.

〈표 1〉 수업 진행 과정

주차	수업 내용	비고
1-3주 차	고등교육 관련 단행본 독서 세미나	고등교육의 목적 (Brighouse & McPherson, 2015)
4-6주 차	고등교육 관련 단행본 독서 세미나	대학의 위기 (미호 & 히로이치, 2018)
7-9주 차	고등교육 관련 단행본 독서 세미나	The end of college (Carey, 2016)
10-15주 차	팀별 연구주제 선정 및 집단 연구	팀 연구주제 1) P 대학교 일반대학원 교육학과의 발전 방향 탐색 2) 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측정 도구 개발

2. 연구참여자

본 연구대상은 수강생 20명 중 13명이 참가한 ‘P 대학교 일반대학원 교육학과의 발전 방향 탐색’ 연구팀의 사례이다. 구성원은 박사 7명(교육심리 및 교육상담 2명, 교육과정 및 교육방법 5명), 석사 6명(교육사 및 교육철학 1명, 교육과정 및 교육방법 3명, 평생교육 1명¹⁾), 유학생 5명이 포함되어 있다(<표 2>). 참여자 집단의 <표 2>와 같은 구성은 석박사, 전공, 유학생, BK사업 참여 여부, 전일제 유무 등 다양하게 포함되어 있어 여러 상황과 관점에서의 주관적 의견을 종합적으로 취합할 수 있었다.

<표 2> P 대학교 일반대학원 교육학과 석박사과정 연구참여자

연번	참여자	과정	세부 전공	유학생	BK 참여 여부 ²⁾	전일제/파트타임 ³⁾
1	A	박사	교육과정 및 교육방법		참여	전일제
2	B	박사	교육과정 및 교육방법		참여	전일제
3	C	박사	교육과정 및 교육방법		비참여	전일제
4	D	박사	교육과정 및 교육방법	유학생	비참여	전일제
5	E	박사	교육과정 및 교육방법	유학생	참여	전일제
6	F	박사	교육심리 및 교육상담		참여	전일제
7	G	박사	교육심리 및 교육상담		비참여	전일제
8	H	석사	교육학		비참여	파트타임
9	I	석사	교육학		비참여	파트타임
10	J	석사	교육학		참여	전일제
11	K	석사	교육학	유학생	비참여	전일제
12	L	석사	교육학	유학생	참여	전일제
13	M	석사	교육학	유학생	참여	전일제

1) P 대학교 일반대학원 교육학과 석사과정은 원칙상 세부 전공이 나뉘지 않으나 박사과정 진학 시 전공을 염두에 두고 석사과정의 지도교수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 석사과정의 다양한 전공 지향성을 보여주기 위해 지도교수의 세부전공에 따른 전공 분포를 표시한 것임.

2) 2020년 12월 기준

3) 2020년 12월 기준

3. 자료수집 및 분석 방법

‘P 대학교 일반대학원 교육학과의 발전 방향 탐색’이라는 주제로 약 4주간의 팀 연구 기간 동안 매 수업 시간 100분가량의 팀 논의 시간을 이용하여 논의를 지속하였다. 토의 하위 항목은 대학원 목표와 정체성, 학사 구조 및 운영, 학생 관리(입학/선발/졸업/진로), 교육 부문(교육 내용/방법/평가), 연구/프로젝트, 인적 환경(교수-학생 간 관계 및 문화), 물적 환경(연구공간/언어정책/교육지원 시스템) 등으로 구분하여 포괄적 논의를 이어나갔다. 대학원에 재학 중인 석박사과정생을 대상으로 한 수업에서 개방형 질문에 관한 내용은 학생 개개인의 학교생활에서 경험한 긍정적 부정적 경험에 중점을 두고, 세부적인 주제에 대한 학생들의 주관적인 경험을 이해하는 분석하는 방법을 택하였다. 팀원 전원이 클라우드 문서를 공유하여 각자 실시간 기록하고 상호 검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방식은 연구대상을 팀으로 구성하여 수행하는 방식은 구성원들의 현실적인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한 상호작용 활동을 포함하고 있다(Jang, 2015). 텍스트에 대해 자유롭게 다양한 논의를 할 수 있는 토의형 수업은 기대하지 못한 다양한 의견(Friedensen, McCrae & Kimball, 2017)을 끌어낼 수 있었으며 개인적 관점을 포함하여 여러 관점에서 특징을 도출해 내기에 적절하였다.

수집한 자료 분석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이루어졌다. 1) 전사된 자료를 반복으로 읽으면서 의미상의 단락들로 나누고 각 단락의 의미가 결집한 대표적인 핵심 어구를 활용하여 명칭을 부여함으로써 초기 코딩작업을 하였다. 2) 초기 코딩작업을 통해 만들어진 하위범주들을 모아 그것들 간의 유사성과 논리적 관련성에 따라 관련 범주들을 묶음으로 상위범주들을 구성했다. 3) 그것들을 유형화, 군집화, 변인 간의 관계짓기, 매개 변인 찾기 등의 방법을 통해 범주화된 의미 주제들을 통합함으로써 크게 ‘P 대학교 일반대학원 교육학과의 목표와 정체성’, ‘학사 구조와 석박사과정 운영’, ‘논문연구와 프로젝트’, ‘인적/물적 환경’ 네 가지로 범주화하여 하위 핵심 주제들을 발견했다. 4) 핵심 주제들을 중심으로 관련되는 텍스트를 선정하여 내러티브 형태의 연구텍스트를 작성하였다.

이와 같은 분석과정은 여러 차례 반복하면서 주제 선정과 의미부여 결과를 계속 보완, 수정하는 작업을 거쳤으며, 연구참여자들이 모두 공유하면서 다시금 수정, 보완을 반복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반복한 이유는 더욱 심층적인 해석은 물론, 신뢰성과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모든 연구참여자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IV. 연구 결과

1. 일반대학원 교육학과의 목표와 교육학 정체성

1) 일반대학원 교육학과에 적합한 목표 정립과 비전 공유

P 대학교 교육학과 대학원생들은 대부분, 지방국립대 일반대학원 교육학과 대학원만의 고유하고 뚜렷한 목표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었다. 일반대학원 외에도 특수대학원인 교육대학원, 학과 간 협동과정 대학원도 여러 과 있는데, 교육목표와 교육과정이 얼마나 차별성이 있는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고, 타 대학의 교육학과 대학원과 구별되는 특색이 있는지도 궁금해했다. 그런 상황에서 일대원 입학생들은 다양한 목적을 갖고 진학하였고, 졸업 후 고유한 진로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었다. 이에 P 대학교 일반대학원 교육학과의 목표를 확립함과 동시에 현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요구조사를 통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목표와 인재상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었다.

“교육학과 교수님들이 수업하시는 교육대학원이나 협동과정도 있는데, 일반대학원 교육학과는 어떻게 다른지, 특히 지방국립대에서 연구중심대학원의 목표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참여자 A)

“현 입학생 유형은 교육학 전문 연구/교육 분야 종사자 역량 강화/유학생 등 다양하다. 인재상 목표를 정할 때, 지금 학생 구성에 기반하여 수요조사하고 반영해야 할 것 같습니다.” (참여자 J)

“교육학과 대학원 과정을 졸업하고 나면 어떠한 역량이 길러져야 할 것인가? 사회에서 요구하는 역량과 교육학과의 역량은 어떻게 부합하고 있는가? 이런 의문이 듭니다. 교육-취업 간의 간극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라는 산-학 mismatch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참여자 F)

“학과와 개인별 목표의 갭은 학과에서 설명이 부족하여 개인마다 ‘여기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동상이몽) 생각하고 오는 것 같아요. 앞에서 얘기했던 것과 같이 최소 목표에 대한 대학원생들의 요구조사를 하여 몇 개의 커리큘럼을 만들어 제시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고등교육전문가(석박사연계)과정, 비전공자교육전문가과정, 전공자교육전문가과정 등” (참여자 I)

한편, 교육학이라는 학문의 특성상 해당 대학원의 목표에 “교육학자, 교육전문가에 필요한 품성과 지도 능력을 기른다' 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 그런 목표를 강조하고 있는지 체감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인적 목적뿐만 아니라 공동선을 생각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목표 확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안되었다.

“어떤 사회적 책임과 요구를 성취할 것인지(교육, 연구), 어떤 교육학자를 양성하고 싶은지(목표 인재상, 전문성과 도덕성) 명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참여자 B)

“각자 미래 진로를 위한 경력개발 차원의 대학원 목표보다는 공공선을 함께 만들어 가는 사회적 역할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참여자 G)

특히, P 대학교 교육학과 대학원은 2020학년도 2학기에 BK4 연구기관으로 선정되면서 교육의 사회적 책임이란 연구 목표를 설정하였다. 대부분의 대학원생들은 이러한 주제 중심의 목표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단지 대책 사업 기간만의 단기적 목표가 아닌 교육학 연구, 교육학 연구자 배출 기관으로서 장기적 비전으로 보다 포괄적으로 확립되기를 바라는 의견들이 많았다.

“다양한 배경의 인적자원을 대상으로 교육학과의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교육목표를 달성할 수 있어야 한다. 국가연구지원사업인 BK에 필요한 인재상을 길러낼 수 있는 사업단의 독자적인 목표는 학과의 목표에 확장된 차원의 목표로 학과, 학교를 대표하는 인재상을 길러내기 위한 목표여야 할 것입니다” (참여자 F)

“느낌감으로 BK는 책임감이 더 느껴집니다.” (참여자 D)

“이번 BK 연구단 목표로 사회적 책임교육을 거론 중인데, 단지 일회적 사업 기간만의 목표가 아닌 장기적인 교육학과 대학원의 목표를 정립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참여자 A)

2) 교육학과 정체성에 따른 대학원 위상의 제고

P 대학교 교육학과 대학원생들은 교육학과 대학원이 중등교원 양성기관인 사범대학에 소속되어 있는 것이 맞는지, 교육학과라는 학부의 목표가 불분명하고 대학원 과정과 어떻게 연계되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교육학이 어떤 학문인지, 교육학과의 정체성과 역할에 근본적 물음이라고 할 수 있다. 교육학이 중등교육뿐만 아니라 유아 초등 고등 평생교육에 걸쳐 인간의 성장에 대한 학문이라면 보다 독립적이고 포괄적인 시각을 가지고 교과나 학문 교육에 기여할 수 있는 위상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현재 교육학과는 중등교원 자격을 부여하는 사범대 소속이지만 교육학 전공자로 중등학교 교원이 되기는 힘들어 복수전공 필수 상황입니다. 학부의 존재가 타당한지 의문입니다.” (참여자 B)

“임용시험의 평가방식이 바뀌지 않는 이상 교육학은 입시 과목으로서의 교직, 논술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 같습니다. 교육학을 전 생애에 걸친 기초학문/ 입시 특수성을 지닌 학문/ 특수대학원의 성격으로 분화할 필요가 있으므로 상위교과목의 개념으로 교육학

을 보는 것은 어떨까요?” (참여자 F)

“교육학은 중등교육뿐만 아니라 고등교육, 평생교육, 기업교육 등 적용 분야가 넓고, 평생에 걸친 인간과 조직의 성장을 다루는 학문인데, 과연 중등교원 양성기관인 사범대 소속인 것이 타당한가 의문입니다. 오히려 사회대학에 소속돼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참여자 D)

“교육학 학문의 정체성과 교육학과 대학원의 위상을 재규정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컨대, 중등교원 양성기관인 사범대 내 교육학과 학부 과정 존재하는 것이 유효한지, 학부 과정 없이 대학원 중심 학문이 될 수 있는지, 유 초중 고등 평생교육 전반에 대한 학문이라면 대학 내 교육학과의 위상은 어떻게 되어야 할지 등등의 쟁점에 대해 함께 숙의해야 할 듯합니다” (참여자 A)

한편, 모든 학문에 필요한 기초적이지 상위적 개념으로서의 교육학의 성격을 생각한다면, 굳이 학부를 둘 것이 아니라, 교육학 학문연구와 직무연수를 포괄하는 교육학 전문대학원을 만들어, 연구중심 대학원, 교원 역량 강화 특수대학원, 필드 혹은 주제별 교육전문가 양성 대학원 등을 통합 운영하는 것은 어떨지에 대한 아이디어도 제시되었다.

“법학/의학/약학 전문대학원처럼 특수직무 중심만 아닌 연구와 직무연수를 포괄하는 ‘교육학 전문대학원’이라는 독립 대학원을 만들고, 그 속에 학령별/분야별/교과 주제별/역량별 교육 이론과 실천원리를 연구하는 연구중심대학원, 유아교육/초등교육/중등교육/특수교육/고등교육 등 학교급 별 교원역량 강화하는 특수대학원, 평생교육/기업교육/시민교육 등 필드별 혹은 주제별 교육전문가 양성 대학원 등 다양한 수요를 만족시키는 대학원을 통합운영하는 전문대학원이 되면 어떨까 하는 상상을 해봅니다.” (참여자 A)

특히, 일반대학원 교육학과에 전일제로 수학하는 대학원생 중에는 학부 전공이 교육학과 무관하거나 초중고 현직 교사가 아닌 분들이 상대적으로 많기에, 교사로서 대학원을 다니시는 분들과 달리 학과의 목표와 정체성에 대한 혼란이 더욱 큰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른 일반대학원 교육학과의 위상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나타났다.

2. 학사 구조와 석박사과정 운영 체제

1) 융복합 전공으로의 변화 필요

P 대학교 교육학과 대학원은 석사과정은 세부 전공의 구분이 없으나, 박사과정은 크게 교육사/교육철학, 교육행정/교육사회/평생교육, 교육과정/교육방법, 교육심리/교육상담 네 가지 세부 전공별로 선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학제 간 융합연구를 강조하고 있는 시

대적 요구에 맞는 교육학의 세부 전공 분리가 한계가 있으며, 해결해야 할 주요 교육 문제, 주제별이나 초 중 고등교육, 평생교육 및 기업교육 등 교육대상 분야별로 나눠 융복합 전공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 등 분분하였다.

“교육격차 같은 문제만 해도 교육철학/사회/행정/심리/상담/과정/방법/평가 등 제 분과가 함께 달려들어 해결해야 하는 복합적 문제, 지금처럼 분과별로 개별적 단편적 연구로 교육 문제해결에 역부족으로 생각해요” (참여자 C)

“박사과정 세부 전공을 오늘날 해결해야 할 중요 교육 문제들을 주제별(예컨대, 역량 기반교육, AI 기반교육, 교육격차 해소, 민주시민교육 등)로 선정하고 하위 필드별 전문적 융복합 전공으로 변화가 필요할 것 같아요” (참여자 B)

“박사과정 동안 특정 교육주제에 대한 전문적이고 심화된 연구와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교육주제별 심화 연구자, 통합적 역량을 가진 체인지 메이커 양성해야 해요.” (참여자 A)

다만, 전공 분야를 새로 정할 시에는 교수와 학생 등 전체 구성원들이 숙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장기적 비전과 목표에 부합하며 P대학교 교육학과 대학원의 특성화와 전문화를 꾀할 수 있는 방향이기를 바라고 있었다.

“교육주제를 정할 때 재직 교수들의 세부 전공과 관심사에 국한되어 배분하는 방식이 아닌, 장기적 비전과 목표에 맞도록 교수와 학생 등 전체 구성원들이 숙의하여 정해야 합니다.” (참여자 C)

2) 석박사 교육과정 체계화 및 차별화 필요

P대학교 교육학과 대학원은 세부전공이 나뉜 박사과정과는 달리 석사과정은 세부 전공이 없는 통합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지도교수 세부전공에 따라 특정 전공을 집중해서 들어야하는 경향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했다. 또한 석박사 학위과정에 상관없이 과정별 기초, 심화, 필수 역량을 단계적으로 체계적으로 키울 수 있어야 하는데,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의 구분이 없고, 등록 학기 내 개설된 강의를 무작위로 들어야 방식이 비체계적이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비전공자 석·박 입학생도 많은 편인데, 보충 과목이 자율선택적이라 교육학자로서 이론적 기초를 다지는 데 한계가 많은 것 같다고 호소하기도 하였다.

“각 과정별로 기초, 심화 필수 역량을 단계적/체계적으로 키울 수 있는 커리큘럼이 아닌 재학 학기 내 개설된 강좌를 무작위로 듣는 시스템으로 보여집니다.” (참여자 D)

“교육학과 대학원 특성상 비전공자 입학생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보충 과목도 자율적

선택 수강, 모든 과정을 수료하고도 전공 이론과 연구 방법 등 교육학 연구자로 전문성을 키웠는지 회의적이고, 보다 체계적 교육 필요하다고 봐요.” (참여자 J)

그리고 박사과정은 수업보다는 실제 연구와 프로젝트로 과정을 구성하고, 각각의 연구와 프로젝트는 다양한 전공의 교수님들이 공동 지도하는 융합적 연구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때, 석사생들은 읍저버로 참여하고 박사생들은 주체적으로 연구 산출물을 내고 이론을 창출하게 된다는 것이다.

“각각의 융합적 연구와 프로젝트에는 다양한 전공의 여러 교수님이 함께 참여와 공동 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참여자 L)

“박사 과정생은 주체적으로 참여하여 연구산출물을 내고, 자신의 이론과 실천을 만 들어나간다면, 석사 과정생은 관심이 있는 주제의 연구에 읍저버로 참여하게 하여 경험을 쌓고 아이디어도 제시하면 좋겠어요” (참여자 J)

이러한 학위과정의 쇄신을 위해서는 1과목 3학점 등의 규제 탈피하여, 시수 및 학점, 교과 형태 등 유연한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학점 이수 외에도 프로젝트 경연대회나 연구과제 발표, 비전공자를 위한 동영상 강의 등 개설 강의 외 탄력적 이수 제도가 필요하다는 다양한 의견을 제안하였다.

“석사 24학점, 박사 36학점, 1과목 3학점 등의 규제 탈피하여 1과목 6-12학점짜리도 구성하면 보다 유연한 과정 운영이 될 것입니다.” (참여자 G)

“박사과정은 연구 위주, 한 학기 혹은 1년 단위로 주제 심화 공동연구 프로젝트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참여자 A)

“비전공자를 위한 선수과목이나 필수과목을 지정하여 동영상 강의 등을 활용 개설 강의 외 탄력적 이수 제도 도입을 원해요.” (참여자 K)

3. 연구와 프로젝트

1) 연구와 프로젝트의 진정성과 내실화 제고

학술연구를 통한 지식 창출이 일반대학원의 주요 역할이라는 점에서 연구를 통한 논문 발행과 프로젝트를 통한 사회 기여에의 연마와 기회를 갖는 것은 대학원 과정에서 수업만큼 중요하다. 그런 만큼 일반대학원 교육학과 대학원생들은 연구와 프로젝트에 대한 관심이 많다. 우선 기본적으로 연구의 진정성과 내실화를 기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일반대학원 교육학과에 진학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교육학 분야에서 필요

한 연구를 할 수 있는 연구자, 학자가 되는 것인데, 과연 대학원이 그러한 과정을 충실히 밟고 있는지 되짚어보고 있었다. 수업을 진행한 교수자도 언급했듯이, 기성 학계에서조차 ‘아무도 읽지 않는 논문’이라는 자조적 표현을 자주 한다. 단지 실적을 위한 논문이 아닌 진짜 필요한 연구, 내실 있는 연구를 하고 있는지 회의가 들고 있다는 의견들이다. 또한 실질적 연구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집중과정이나, 특히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국제협력 연구와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 논문은 있으나 연구는 없는, 교수는 있으나 지도는 없는, 발표는 되지만 아무도 읽지 않는 논문이라는 자조를 우리 스스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교수자들과 학습자들의 집단 지성을 통해 꼭 필요하고 가치 있는 연구 결과물을 만들어야 합니다” (교수자)

“ 방학 때 집중적으로 학과이나 연구실에서 다양한 주제를 정하여 공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BK사업이 그런 것이 있지만 일반 학생도 다양한 영역에 대한 시야를 넓히고 학술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참여자 K)

“외국 교육학과와의 교류를 통한 국제 협력식 연구와 소통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참여자 E)

김안중(1993)은 ‘염불보다는 잿밥에만 관심 두고 연구비 나눠 먹기 관행으로 R&D가 오히려 연구를 망친다’ 라고 지적했었다. 과연 우리가 하는 프로젝트가 교육학 학문 발전과 이론 개발에 얼마나 공헌하는지, 실제 지역의 교육 문제해결에 이바지하는지 검토해야 할 듯하다. 교육학과 대학원에 진학한 대원생들은 대부분 교육 발전에 공헌할 기회와 소망을 바라고 온 만큼, 정말 필요한 연구, 공익적이고 실제로 교육 문제를 해결하는 연구와 프로젝트에 매진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었다. 이는 교수님들과 원생들이 집단 지성을 통해 꼭 필요하고 가치 있는 연구주제를 발굴하고 함께 결과물을 만들어간다면 가능하리라 희망하고 있었다.

“교육학과 대학원에 입학한 연구생들은 적어도 우리 사회 교육 개혁에 이바지하고 싶은 소망을 가지고 입학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연구를 통해 교육 발전에 공헌할 기회를 가지는 것은 대학원생에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최근에 특히 BK에서 사회공익에 이바지하는 연구와 실천에 주목하고 있어 기대됩니다.” (참여자 A)

“ 실질적 교육 문제해결을 위한 실천적 프로젝트를 중점으로 하여 그 산출물이 공익적이고 생산적이어야 할 것 같습니다.” (교수자)

“현재 정말 필요한 연구가 무엇인지에 대한 숙의를 통해 연구주제를 공론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수님들과 원생들의 집단 지성을 통해 꼭 필요하고 가치 있는 연구주제를 발굴하고 함께 결과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참여자 A)

2) 공동 연구와 공동 지도 체제 구축

대학원생들은 실질적인 연구와 프로젝트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동 연구와 공동 지도 체제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초 복합 사회에서 개인의 역량과 관심사에 의존해서는 실질적인 융합적 연구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우선, 다학제적 접근이 필요한 교육 문제해결과 연구를 위해 함께 연구하고,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수주하여 공동 수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금처럼 전공과 개별연구실별로 나뉘어 일률적이고 분절적인 칸막이 연구를 지양하고, 다양한 전공과 연구실 간의 협업을 통해 연구 결과물의 질적 개선과 융합적 연구문화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것이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과정생은 수업을 통해 공동 연구와 공동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고, 담당 교수님들의 교차적 혹은 공동 지도가 가능해져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이제는 교육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여러 전공에의 다학제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연구를 위한 공동 연구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분과별/개별연구실별로 나뉘어 일률적이고 단편적인 연구를 하고 있어 칸막이 연구 경향에서 탈피해야 하지 않을까요. 융합적 연구와 프로젝트에 걸맞은 전공과 연구실 장벽 제거 필요합니다.” (참여자 A)

“과정 중 듣는 수업과 공동 연구, 프로젝트에 따라 여러 담당 교수님들의 교차적 혹은 공동 지도 가능해졌으면 좋겠어요.” (참여자 D)

3) 대학원생들의 연구와 프로젝트 참여에의 개방성과 자율성 제고

연구의 진정성과 내실화, 그를 위한 공동 연구와 공동 지도에 이어, 연구와 프로젝트 참여에 있어서 대학원생들은 개방성과 자율성 또한 보다 높아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참여하고 싶은 연구와 프로젝트는 연구실과 전공과 상관없이 개방적으로 공정하게 기회가 제공되고, 반면 참여하기 힘든 경우는 자율적인 선택의 기회가 주어지기를 바라고 있었다. 또한 개방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참여시 기여도에 따른 정당한 대우와 보상은 당연한 요구이다. 특히 흔히 ‘교육적’ 이다는 말은 ‘도덕적’ 이라는 말로 통용되기도 하듯, 교육학과는 연구 윤리에 있어서 누구보다 더 엄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학술논문을 쓸 때 굳이 같은 연구실과 사람과 같이 안 써도 눈치를 보지 않고 다른 방향과 결합하여 쓸 수 있도록 문화가 조성되면 좋겠습니다” (참여자 K)

“우리 연구실 사람이 아니라서, 연구실적 퍼센트 때문에, 연구력 부족 같은 문제는 과정생에게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연구와 프로젝트 참여자에 대한 공모나 공지를 하여 원생들이 참여하고 싶은 연구프로젝트 참여의 기회가 개방적으로 공정하게

제공되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지도교수나 연구실 선배가 하는 연구와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개인 연구주제와 무관하고 학업 시간이 부족할 경우, 참여하지 않아도 불이익 없도록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여자 A)

“연구와 프로젝트 참여했을 때 그 기여도에 따라 정당한 대우와 보상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교육적'이라는 말은 '도덕적'이라는 말로 통용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과정은 어느 분야에서보다 엄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참여자 A)

4. 인적 및 물적 환경

1) 교수 간 / 학생 간 / 교수 학생 간 상생적 관계

대학원생이 독립된 연구자 혹은 학자로서의 성장과 건강한 연구문화를 만들기 위해 인적 환경으로서 교수 간, 학생 간 혹은 교수와 학생 간의 상생적 관계의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었다. 또한 교육학과가 연성학문 중 하나로서 경성 학문인 이공계열과 달리 인문 사회계열 교수들은 학생 지도와 본인의 연구를 이중적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부담을 대학생들 또한 인지하는 부분으로 교수들의 수업, 논문지도, 프로젝트, 보직 업무 등의 고된 일로 힘든 상황이라면 고등교육의 발전을 위해 교수 역할의 구분과 분야별 전문성의 필요성에 의견을 모으고 있었다.

“교수님의 수업, 논문지도, 프로젝트, 보직 등 특장점을 살린 역할 구분에 따른 업무와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면 좋겠어요.” (참여자 J)

“가르치는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교수, 연구하고 논문 쓰는 교수, 지역사회와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교수, 학생 상담과 진로를 담당하는 교수 등 역할 구분이 되어야 보다 전문적인 연구원을 기를 수 있을 거예요.” (참여자 I, 참여자 K)

또한 교수와 학생 간의 관계는, 현재 상황이 지도교수와 일대일 관계로 다소 닫힌계라고 한다면, 이제는 고등교육의 발전 상황을 고려하여 학과 내 전공과 연구실의 장벽을 넘어서 여러 교수와의 소통과 협업을 할 수 있는 다대다 관계로서의 열린계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지도교수뿐만 아니라 다양한 전공의 교수들과 긍정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현재의 교수-학생 간 소통 범위나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참여자 J)

“논문 주제에 따라 (그에 적합한) 여러 전공의 교수님들께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어요.” (참여자 A)

위 상기된 내용도 필요하지만, 특히 많은 대학원생이 지적하고 강조하는 부분으로 학생 간의 유기적인 관계의 형성에 있다. 그 대안의 의견으로 선후배, 한국인-유학생 간의 멘토·멘티 시스템이나, 유학생 간 상호 부조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전공과 학과를 넘어선 대학 전체 내에서의 연구 공동체 문화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연구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는 계기, 참여 방법, 참여 기간, 참여 인원, 대학원생의 관심사와 프로젝트 주제의 연관성 및 적합성 등을 고려할 수 있는 문화가 조성될 게 필요해요.” (참여자 K)

“연구실에 국한하지 않고 교육학과 대학원의 선후배와의 멘토링 시스템이나 스터디가 필요하다. 또한 한국인 대학원생-유학생-선배 대학원생의 3인 체제로 팀을 꾸려, 수업과 관련된 내용정리나 스터디를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자 D)

“유학생의 경우, 동일한 국적을 가진 학생들의 모임을 형성하여 네트워크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모국어로 교류하며 깊이 있는 학습이 가능할 거예요.” (참여자 K)

“연구방법에 대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며, 교육학과 내부의 세부 전공뿐만 아니라 교육과 연계할 수 있는 다양한 전공과의 적극적인 교류가 일어나도록 기회를 마련할 수 있는 교육 연구 공동체 문화가 있어야 해요.” (참여자 C)

2) 대학원생 독립 연구공간 지원

현재 P 대학의 대학원생들이 공부하는 시스템은 지도교수 연구실에서 공부하고 있다. 이 전통적인 방식에서 대학원생들은 다양한 전공과의 적극적인 교류를 위해서는 현재 이러한 환경 속에서보다 대학원생들의 독립된 공간에서 타전공/타 연구실 원생들과 함께 공부하고 교류함으로써 ‘칸막이 연구’ 현상에서 발전된 융합된 연구를 갈망하고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대학원 내 수업이 공동 연구에 대한 것이 많아 잦은 모임을 요구하다 보니 정작 모임 장소도 없어 실질적으로 장소 선정에 고전하기도 한다.

“교수와 별도로 연구생을 위한 공동 연구실 필요해요. 지도교수 연구실에서 연구하다 보면 타 연구실이나 타전공 간 교류가 없어 칸막이 연구라는 현상 발생하기도 하고, 지도교수에 종속되기도 하거든요.” (참여자 A)

“대학원생들이 함께 스터디할 세미나 공간, 답소를 나누고 교류할 공간 필요하긴 해요.” (참여자 G)

“연구 공감의 장소가 마련되면 좋겠다. 교수와 별도로 연구생을 위한 연구실 마련되어 타전공과 함께 교류하고 같이 스터디할 수 있는 모듈실이나 강의실이 있으면 보다 소통을 통한 각자의 역량이 증진될 것이다.” (참여자 K)

3) 교육지원 시스템 강화

대학원의 경우 학부에서 바로 진학하는 경우도 있으나 유학을 온다든지 직장 생활 혹은 다른 전공에서 지식 충족과 취업을 목적으로 그에 대한 교육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습득을 위하여 입문하는 경우가 있다 보니 학부 혹은 석사과정 비전공자의 경우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기초나 보충수업이 필요한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러한 경우 수업을 듣는 것만으로 기본 교육학 소양을 갖추기 힘든 현실이다. 또한 유학생의 경우에는 유학생을 위한 영어 수업이나, 전공 한국어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프로그램이 있다면 훨씬 유학생들의 적응이 빠를 것이라는 의견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보다 교육학 기본 소양을 갖추기 위해 체계적인 교육지원 시스템이 강화를 주장하며,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 필수 소양을 다질 뿐만 아니라 기본이 튼튼한 연구 과정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들이었다.

“동영상 시청으로 자율적으로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 교육학 필수 도서에 대한 서평이나, 문제식 시험 등 기본 교육학 소양 검증체계를 갖추어 교육지원 시스템이 강화되면 좋겠어요.” (참여자 G)

“유학생 지원 부분에서 유학생들을 위한 한국어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전담 직원이 이를 체크해주면서 대학원 생활 적응 부분까지 케어해 줄 필요가 있어요.” (참여자 J)

“유학생들이 전공수업에 잘 적응할 수 있게 전공과의 한국어를 지속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한국어 교육과정 필요합니다.” (참여자 K, 참여자 J, 참여자 H)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P 대학교의 일반대학원 교육학과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일반대학원으로서의 교육학과의 발전방안을 탐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P 대학의 일반대학원 교육학과 수업에서 석박사 재학생들의 토의토론을 중심으로 일반대학원 교육학과의 발전 방향에 대한 선행연구와 P 대학의 일반대학원 교육학과의 운영 현황과 특이점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해당 대학 교육학과의 발전방안을 모색하였으며, 이에 따라 일반대학원 교육학과 발전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한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한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대학원으로서의 교육학과의 목표와 정체성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P 대학의 교육학과의 경우 일반대학원과 교육대학원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학과 간 협동과

정 및 계약학과 등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다. 또한 일반대학원생의 구성원 또한 전일제로 대학원을 다니는 전일제 대학원생과 교사, 대학 직원, 공무원 등 여러 직종의 파트타임 대학원생 그리고 유학생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어 저마다의 목적을 지닌 채 대학원 과정을 수학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P 대학의 특수한 상황이 아니며, 실제로 학문과 연구목적이 아닌 좋은 직장, 취업, 사회적 평판 등의 이유로 대학원에 진학하는 비율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난다(양정승, 2013). 또한 이외에도 학교마다 처한 상황과 환경, 구성원이 다르기 때문에 일반대학원으로서 교육학과의 지향해야 할 목표와 정체성이 다를 수 있다. 하나의 사회 및 공동체의 비전과 목표는 조직을 구성하는 주요 요소이며(이상수, 2000), 조직의 목표를 설정할 때는 구성원 개인의 목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Jex & Britt, 2019). 특히 현재 P 대학의 교육학과는 BK사업의 주제에 따른 교육과정을 일부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교육과정의 목적을 BK사업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대학원생들에게도 공유될 필요가 있다. 또한 교육학과는 중등 양성기관인 사범대에 소속되어 있지만, 실제 일반대학원 교육학과에 진학한 대학원생 직군의 학교급과 교육과정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중등 양성기관으로 국한되는 것에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이 기타 특수 및 전문대학원과 일반대학원의 교육 내용과 교육과정 운영의 차별화는 계속 지적되어왔던 부분이며(신현석 외, 2013), 이에 따라 일반대학원 교육학과의 목표와 방향성을 다시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학사 구조와 석·박사과정의 운영 체제의 변화를 고려해야 한다. 대부분의 교육학과 대학원은 교육학의 세부 전공별로 학위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할 사회적 문제는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서 발생하여 융·복합적 사고로 해결해야 하는 비구조화된 문제(ill-structured problem)이다(이상수, 김은지, 김현지, 이유나, 2021). 교육학적 문제 또한 다양한 교육학적 관점에서 현상과 문제를 이해하고 융·복합적 사고로 접근해야 한다. 이를 위해 대학원생들의 전공을 단순히 교육학 세부 전공별로 구분하는 것이 아닌 교육 문제 및 주제 또는 교육 분야를 고려하여 구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석·박사과정의 교육과정 운영에도 변화가 필요하다. 일부 세부 전공을 제외하고 석·박사과정생이 이수해야 할 과목이나 교육과정이 구분되지 않고 운영되고 있다. 대학 대부분이 획일적인 학사관리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상황이지만 학과의 발전을 위해서는 비전과 목표를 정립하여 학과 특성에 맞게 운영해야 한다(신현석 외, 2013). 또한 석·박사과정을 별도로 운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각 과정에서 이수해야 할 공통기초 교과, 심화전공 교과를 편성하여 기초 교육학, 연구방법론, 세부 전공 교과들을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셋째, 연구 및 프로젝트 내실화 제고와 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일반대

학원의 교육 및 연구 성과를 무엇을 기준으로 볼 것이냐에 대한 논의는 다양하지만, 교수나 대학원생의 논문 편수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대학원의 연구와 프로젝트가 정말 교육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연구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점을 지니고 있다. 내실화 있는 연구와 프로젝트를 위해서는 교육학 그 자체의 학문과 이론을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장 기반의 연구를 통한 교육 실천 또한 중요하다(이상수 외, 2021). 교육 이론과 교육 실천 간의 괴리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지만, 이론과 실천의 밀접한 관련성에 대해서는 대다수의 교육학자가 동의하고 있는 부분이다(김창환, 1995). 일반대학원 교육학과의 질적 성장을 위해서는 연구를 위한 연구가 아닌 실제적인 실천을 위한 연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 각 연구실 간의 공동 연구와 각 세부 전공 교수 간의 공동 지도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는 앞에서 제시한 석·박사과정생의 융·복합적 사고를 함양하기 위한 교육과 더불어 융·복합적 연구 역량을 기르기 위한 지원 방안이 될 것이다.

마지막은 대학원의 인적 및 물적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다. 대학원생은 독립된 연구자 또는 학자로서 성장하여야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대학원에서의 성공적인 사회화 과정이 중요하다(Weidman et al., 2001). 현재의 대학원은 연구실별 지도교수와 지도학생의 관계로 한정적이며 다소 폐쇄적인 분위기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이후의 앞으로의 사회는 개인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는 초 복잡 문제를 지닌 초 복잡 사회로 집단적 문제해결을 위한 협업 또는 협력이 강조된다(이상수 외, 2021). 따라서 개별 지도교수 또는 연구실을 넘어선 대학원 구성원 간의 폭넓은 관계와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이러한 개방적이고 자율적인 인적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대학원생이 독립적으로 또는 전공 융합 간의 연구를 위한 물리적 공간을 지원해야 한다. 일반대학원 교육학과만의 재정적 지원체제를 확보하지 못한 채 학부와 자원들을 공유하면서 부속기관으로서 인식되어서는 교육학과의 발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신현석 외, 2013). 또한 교육학과의 대학원생의 교육 및 연구의 양적, 질적 성장을 위해서는 다양한 교육적 지원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현재 일반대학원 교육학과는 외국인 유학생 또는 타 전공의 학사 졸업자들의 유입이 많으며 이들의 경우 교육학에 대한 기초적, 전문적 지식을 습득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학습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초적 필수 소양 과목이나 역량에 대한 자료와 지원을 체계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일반대학원 교육학과는 교육과 연구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고 교육의 개념에 연구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신현석 외, 2013). 따라서 일반대학원 교육학과의 목표, 교육과정 운영, 지도교수의 역할 등이 분명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P 대학 교육학과에서 실제 교육 및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석·박사과정생들을 대

상으로의 일반대학원 교육학과의 현황 및 전체 운영과정을 면밀히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P 대학 교육학과의 특수한 상황으로 발생한 문제점과 갈등, 일반대학원 교육학과로서의 정체성과 위기, 대학원생들의 개인적 경험 등 다양한 현상을 심층적으로 고려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또한 P 대학 교육학과의 특수한 상황에 기반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기 때문에 타 대학 교육학과에 일반화할 수는 없다. 본 연구에서 도출한 발전방안들은 교육학과의 체제 및 지원에 영향을 미치는 각 대학의 다양한 특성과 특성 간의 유기적인 관계를 고려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발전방안들은 개별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일반대학원으로서의 교육학과의 발전을 위해서는 개별 구성원 또는 공동체적 차원에서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가야 할 것이다. 또한 추후 연구에서는 고등 교육기관 관련 전문가 혹은 타 대학의 일반대학원 교육학과 대학원생 등 관점을 좀 더 다각화하여 발전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강인수(2002). 대학원 교육의 이념과 기능. *대학교육*, 120, 13-21.
- 고등교육법 제 29조 2항. (대학의 종류). (전문개정. 2011. 7. 21.).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3%A0%EB%93%B1%EA%B5%90%EC%9C%A1%EB%B2%95> 에서 2021. 6. 15 인출.
- 고등교육법 제 30조. (대학원대학). (전문개정 2011. 7. 21.).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3%A0%EB%93%B1%EA%B5%90%EC%9C%A1%EB%B2%95> 에서 2021. 6. 15 인출.
- 교수신문(2013.03.10). 지방대 박사과정 4명중 1명은 특수대학원석사. <http://www.kyosu.net/news/articleView.html?idxno=28525> 에서 2021. 9. 7. 인출.
- 국가교육통계센터(2020a). 대학통계 연도별 학년별 재적학생수. https://kess.kedi.re.kr/mobile/stats/school?menuCd=0102&cd=5074&survSeq=2020&itemCode=01&menuId=m_010205&uppCd1=10205&uppCd2=010205&flag=A 에서 2021. 6. 15 인출.
- 국가교육통계센터(2020b). 대학통계 연도별 재적학생수. https://kess.kedi.re.kr/mobile/stats/school?menuCd=0102&cd=5073&survSeq=2020&itemCode=01&menuId=m_010205&uppCd1=010205&uppCd2=010205&flag=B 에서 2021. 6. 15 인출.
- 국가교육통계센터(2020c). 학과계열별 입학자수. https://kess.kedi.re.kr/stats/school?menuCd=0102&cd=4773&survSeq=2012&itemCode=01&menuId=m_010208_03_01020803&uppCd1=01020803&uppCd2=01020803&flag=B 에서 2021. 9. 7 인출.
- 김세련, 최고은, 박인우(2020). 일반대학원 교육만족도 요인 모형에 대한 실증적 탐색. *교육방법연구*, 32(3), 487-510. <http://dx.doi.org/10.17927/tkjems.2020.32.3.1>
- 김원찬(2004). 대학원 교육의 현황과 향후 발전 방향. *대학교육*, 130, 8-15.
- 김창환(1995). 교육이론과 교육실천의 관계에 대한 헤르바르트의 이해. *경희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논문집*, 11(1), 1-17.
- 김혜진, 김혜나, 김종민, 강신범, 남기곤, 박수홍, 강문숙(2012). 체계적인 액션러닝을 활용한 대학원 신입생 학교생활 지원 콘텐츠 개발 및 적용방안 탐색. *교육혁신연구*, 22(3), 89-108.
- 대학알리미 (2021). 부산대학교 일반대학원 교육학과. <https://www.academyinfo.go.kr/pubinfo/pubinfo0081/doInit.do?schllId=0000773&schllMjrId=0035316&mjrId=0008914&mjrNm=%EA%B5%90%EC%9C%A1%ED%95%99%EA%B3%BC&schNm=%EB%B6%80%EC%82%B0%EB%8C%80%ED%95%99%EA%B5%90%20%EC%9D%BC%EB%B0%98%EB%8C%80%ED%95%99%EC%9B%90&svyYr=2021#none> 에서 2021. 7. 28 인출.
- 문지윤(2019). 나는 어떻게 연구자가 되는가 *교육학 박사과정 대학원생의 자문화기술지*.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24), <http://dx.doi.org/1073-1101.10.22251/jlcci.2019.19.24.1073>
- 박민정(2007). 프로젝트 기반 수업을 통한 대학원 학생들의 학습경험에 관한 연구. *교육과정연구*,

- 25(3), 265-288. <http://dx.doi.org/10.15708/kscs.25.3.200709.011>
- 방현희, 이미정, 레기영짱(2015). 한국 대학원 유학생들의 진로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교육문화연구*, 21(4), 309-334. <http://dx.doi.org/10.24159/joec.2015.21.4.309>
- 부산대학교(2021). 제26호 2020 통계연보. 부산: 부산대학교.
- 부산대학교 (일반대학원 경쟁률 및 충원율(2021)). <http://www.gradmap.co.kr/rate/rate1070.htm> 에서 2021. 07. 28 인출.
- 부산대학교 BK21 교육의 사회적 연구단(2021). 교육연구단 소개. <https://bkesr.pusan.ac.kr/bkesr/56785/subview.do> 에서 2021. 07. 28 인출.
- 신현석(2011). 대학원 체제의 미래 비전과 추진방안 탐색. *한국교육학연구*, 17(1), 156-192. UCI : G704-001273.2011.17.1.001
- 신현석, 안선희, 엄준용(2013). 일반대학원 교육학 교육의 현황과 과제. *교육문제연구*, 26(4), 109-138. UCI : G704-001272.2013.26.4.002
- 신현석, 이은구, 김겸훈, 노명순(2008). 대학원생이 인식하는 대학원 교육의 질 만족요인 탐색. *교육문제연구*, 31, 49-77. UCI : G704-001272.2008.31.003
- 신희권(2010). 대학원 교육과정의 내실화 방안 모색. *한국행정학회 추계학술발표논문집*, 2010(-), 13-27.
- 안유리, 이대균(2012). 대학원 생활을 병행하는 유아교사들의 경험과 의미. *열린유아교육연구*, 17(6), 27-52. UCI : G704-000666.2012.17.6.011
- 연합뉴스(2021. 06. 21). 20년 전보다 전문대 졸업자 25%↓ 대학원 졸업자 86%↑. <https://www.yna.co.kr/view/AKR20210621066700530> 에서 2021. 6. 25 인출.
- 이상수(2000). 학습조직 진단을 위한 준거 개발. *교육연구*, 23, 83-102.
- 이상수, 김은지, 김현지, 이유나(2021). 교육의 사회적 책임 의미 탐색. *교육혁신연구*, 31(1), 85-112. <http://dx.doi.org/10.21024/pnuedi.31.1.202103.85>
- 이수정, 김승정(2020). 일반대학원 교육학과 석사과정생의 대학원 학습경험과 진로에 관한 연구. *아시아교육연구*, 21(3), 879-906. <http://dx.doi.org/10.15753/aje.2020.09.21.3.879>
- 이영신(2020). 현직 교사의 대학원 경험과 의미에 관한 사례 연구: K대학교 교육행정 전공 대학원생을 중심으로. *지방교육경영*, 23(1), 65-93.
- 이영민, 임정연(2011). 4 년제 대졸자의 대학원 진학 결정요인 분석. *직업능력개발연구*, 14(3), 233-258. <http://dx.doi.org/10.36907/krivet.2011.14.3.233>
- 임희진, 김소현, 박혜연, 김경호(2016). 연구중심대학 석사과정 학생의 대학원 학습경험에 대한 연구. *아시아교육연구*, 17(3), 379-408. UCI : G704-000733.2016.17.3.011
- 장유나, 강윤경, 배상영, 오현정, 홍세희(2020).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한 국내 대학원 교육학과 세 부전공 분석. *교육문화연구*, 26(4), 407-426. <http://dx.doi.org/10.24159/joec.2020.26.4.407>
- 최윤미, 김민성, 홍윤경, 남창우(2010). 연구역량에 대한 이해 대학원생, 연구원, 교수 집단의 인식 차이를 중심으로. *아시아교육연구*, 11(2), 1-27. <http://dx.doi.org/10.15753/aje.2010.11.2.001>
- 최인희(2020). 대학원생의 특징 및 대학원 진학 영향 요인 분석: 한국교육중단연구 자료를 중심으로

- 로. 열린교육연구, 28(4), 23-43. <http://dx.doi.org/10.18230/tjye.2020.28.4.23>
- 한국교육개발원(2018). 교육통계분석자료집-고등교육통계편. 충북: 한국교육개발원.
-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13).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진학자들의 취업 실태. KRIVET Issue Brief 28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崎谷 実穂 & 柳瀬 博一(2018). 대학의 위기, 뒤집어보면 기회다[混ぜる教育 : 80カ国の学生が学ぶ立命館アジア太平洋大学APUの秘密]. (김대식 역). 서울: 매경출판. (원전은 2016에 출판)
- Bird, B. L. (2017). Student and staff perceptions of the international postgraduate student experience: a qualitative study of a UK university. *Journal of International Students*, 7(2), 329-346.
- Brighouse, H., & McPherson, M.(2020). 고등교육의 목적: 도덕과 정의의 문제[The aims of higher education : problems of morality and justice]. (이지현 역). 서울: 학지사. (원전은 2015에 출판)
- Carey, K.(2016). 대학의 미래: 어디서나 닿을 수 있는 열린 교육의 탄생[End of college : creating the future of learning and the university of everywhere]. (공지민 역). 서울: 한국방송대학교출판문화원. (원전은 2015에 출판)
- Jex, S. M., & Britt, T. W.(2019). *Organizational Psychology: A scientist-practitioner approach*(3rd Ed.), (박영석, 서용원, 이선희, 이주일, 장재윤 역). 조직심리학. 서울: 시그마프레스. (원전은 2018에 출판)
- Weidman, J. C., Twale, D. J., & Stein, E. L. (2001). Socialization of graduate and professional students in higher education: A perilous passage? ASHE-ERIC Higher Education Report, 28(3). Jossey-Bass Higher and Adult Education Series. San Francisco, CA: Jossey-Bass.

[Abstract]

A Study on the Development Plan of the Department of Education at General Graduate School: focusing on the case of the graduate class at P university

Kim, Mi Ho · Kee, Hee kyung · Ji Mi young(Pusan National University, instructor professor)
Kim, Hyun Ji(Tongmyong University, visiting professor)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current situation and problems and explore the development plan of the department of education as a general graduate school at P university. Previous studies dealt with the development plans were reviewed and comprehensive analyses conducted for the department of the general graduate school at P university. Public discussions and debates for the enrolled students in the course of Master and Doctor's degree were held during the semester to achieve the research purpose. The results reached in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re-establish the objectives and identities of the department as a general graduate school to share vision with the members. Then, it needs to be considered as the changes of Master and Doctor's course in the academic affairs organization and operation system for the multidisciplinary education problem-solving. Third, it is vital to plan substantial co-work, cooperative instruction and projects for the feasible research and practice. Finally, the open network among the graduate school members and human/physical environments are needed for the higher level of internationalization and effectiveness. The development plan would not be individually pursued but regarded as the organic relations embracing various and influential factors to the system and support of the department. In addition, it is required to make persistent efforts for the personal or communal dimension to develop the department of education as a general graduate school.

Key words: general graduate school, department of education, development plan, department identity, graduate students